

numbers 제 106호



주요 내용

2021.07.30

1. 이번 주 주제 : [우리나라 기후 위기]

- 지구 온도, 1만 년에 걸쳐 4도 올랐는데, 산업화 후 100년 만에 1도 상승!

2. 최근 언론보도 통계

- [코로나19 국민 정신건강 실태] 우울 위험군, 2019년 3% → 2021년 6월 18%

우리는
더 나은 정보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고
믿습니다

목회데이터연구소 주간리포트

홈페이지 | www.mhdata.or.kr
E-mail | mhdata@mhdata.or.kr
전화 | 02.322.0726

일반사회 통계

지구 온도, 1만 년에 걸쳐 4도 올랐는데, 산업화 후 100년 만에 1도 상승!

'미 대형산불 연일 지속', '캐나다에서 폭염으로 500명 이상 사망', '서유럽 홍수로 최소 200명 이상 사망'... 최근 국제 뉴스에서 심심치 않게 보이는 기후 재난 관련 뉴스다. 먼 타국까지 갈 것도 없이 우리나라도 마른 장마와 무더위 속에 올해 폭염 일수와 열대야 일수가 평년 수준의 2배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야말로 지구가 끓고 있는 것이다.

지구의 온도는 1만 년에 걸쳐 4도 올랐는데, 산업화 이후 100년 만에 1도가 상승했다. 이는 자연 스스로 온도 변화 속도보다 무려 25배나 빠른 속도다. 지구는 지금 폭염으로, 홍수로, 열이 나고 있다고 외치고 있다. 사람은 열이 나면 해열제를 먹으면 되지만 지구는 열이 나면 내리기가 쉽지 않다. 지구 온도 상승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는 한 번 배출되고 나면 대기 중에 누적되어 최대 200년까지 머무르기 때문이다.

과학자들은 지구의 온도가 지금처럼 상승한다면 더워서 살 수 없는 땅이 현재 1%에서 50년 내에 19%로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한다. 재배할 수 있는 곡물과 마실 물이 줄고, 동식물 서식지가 줄고, 결국 인류의 위기를 초래할 것인데, '기후 변화', '기후 위기' 단어는 많이 들어도 경각심은 잘못 느끼고 사는 것 같다.

목회데이터연구소 주간리포트 <넘버즈> 제 106호에서는 현재의 기후 위기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짚어보고자 한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을 잘 보존하는 것도 인간의 의무임을 되새기며, 건강한 지구를 위해 작은 것이라도 실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일러두기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빈도는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본 리포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각각의 통계마다 그 자료의 출처(생산자)를 의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인용하실 경우, 원 자료 출처(생산자)를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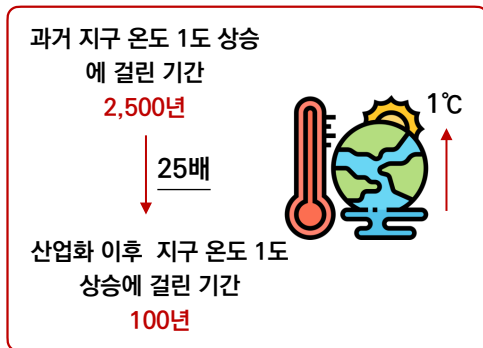
1



지구 온도, 1만 년에 걸쳐 4도 올랐는데, 산업화 후 100년 만에 1도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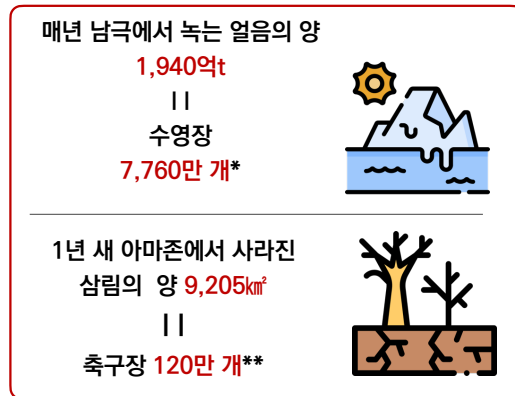
-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기후는 급속도로 빠르게, 안 좋은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 지구상에서 빙하가 가장 평창했던 시기부터 약 1만 년에 걸쳐 지구의 온도는 4도가 상승했다. 단순 계산하면 1도 올라가는 데 2,500년이 걸린 것이다. 그런데 산업화 이후 불과 100년 만에 인간은 지구를 1도 더 뜨겁게 만들었다. 자연의 스스로 온도 변화보다 25배나 빠른 속도이다.
- 매년 남극에서 녹는 얼음의 양은 수영장 7,760만 개를 채울 수 있을 정도이고, '지구의 허파'로 불리는 아마존에서 1년 새 사라진 삼림의 양은 축구장 120만 개의 크기에 달한다.

[그림] 지구의 평균기온 1도 상승에 걸린 기간



*자료 출처 : 중앙일보, '기온 0.5도 오르면 난민 1억...한국이 첫 위기국 될 가능성', 2020.8.15.
<https://news.joins.com/article/23849423>

[그림] 녹는 빙하와 사라지는 삼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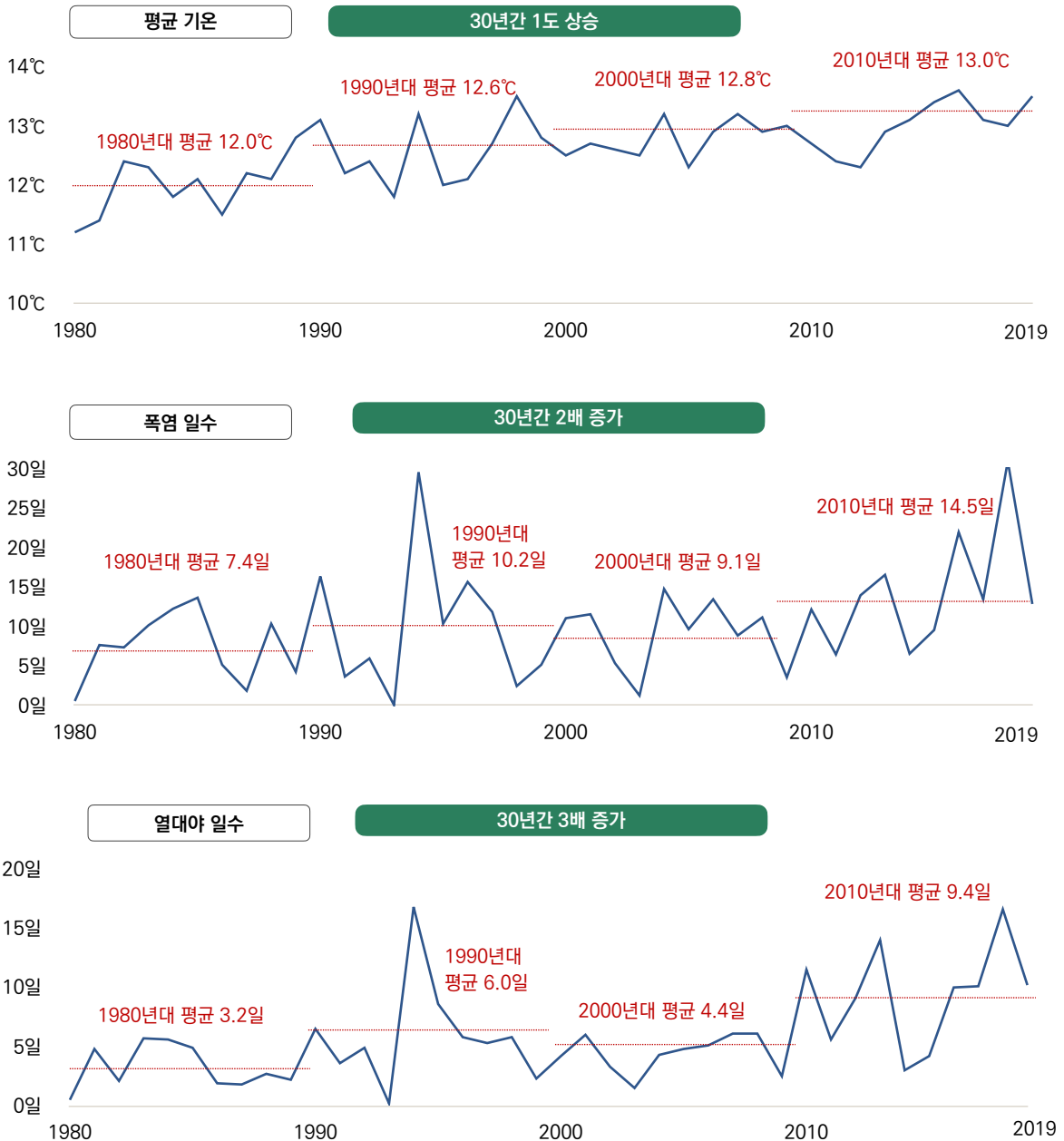
*자료 출처 : 경향신문, '2020년 지구, 이렇게 더웠다... "가장 더운 37개년 중 한 해"', 2021.1.15. <https://www.khan.co.kr/world/world-general/article/202101151625001#csidxb70f13398bb7b60a7bc06b7cb37efdd>

** 자료출처 : 한겨레21, "저탄소' 넘어 '탄소중립'으로", 2020.8.30.
http://h21.hani.co.kr/arti/world/world_general/49151.html

● 우리나라 평균 기온 30년간 1도 상승 → 이상기후 현상 증가

- 우리나라의 온난화 속도는 더 빠르다. 1980년대 이후 우리나라 평균 기온은 계속 상승해 왔는데, 지구의 온도가 1도 올라가는 데 100년이 걸린 반면, 우리나라의 평균 기온은 30년 만에 1도 상승했다.
- 폭염과 열대야 등의 이상기후 현상이 증가하고 있는데, 폭염 일수는 80년대 이후 30년간 7.4일에서 14.5일로 2배 증가하였고, 열대야 일수는 3.2일에서 9.4일로 3배가량 증가했다.

[그림] 우리나라 기후변화



*자료 출처 : 기상청 기상자료개방포털 기후통계분석, <https://data.kma.go.kr/cmmn/main.do>

● 향후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은 세계적 위험 요인, 1위 ‘극단적 이상기후’

- 세계경제포럼(WEF)이 지난 1월 ‘Global Risks Report 2021’을 발표했는데, 이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경제포럼 관계 전문가 841명을 대상으로 경제/환경/지리/사회/기술적 위기 항목 35개를 선정한 후 위험 요인의 ‘파급력’(Impact)과 ‘발생 가능성’(Likelihood) 측면으로 그 위험도를 측정(1~5점)하였는데, ‘발생 가능성’ 측면에서는 ‘극단적 이상기후’가 1위에 올랐고, 2위 ‘기후 변화 대응 실패’, 3위 ‘인간의 환경 파괴’ 등 1~3위가 모두 기후와 환경과 관련된 사항이었다.
- 전체적으로 충격과 향후 발생 가능성 측면에서 기후 변화/환경적 위험이 가장 크게 대두되는 것으로 나타나, 교회 차원에서도 깊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전 세계 위험 요인 분야별 순위(파급력 vs 발생 가능성)

	발생 가능성이 큰 위험 요인	충격(파급력)이 큰 위험 요인
1위	극단적 이상기후	전염병
2위	기후 변화 대응 실패	기후 대응 실패
3위	인간 활동이 초래한 환경 파괴	대량 살상 무기
4위	감염성 질병	생물 다양성 손실
5위	생물 다양성 손실	천연 자원 위기
6위	디지털 권력 집중	환경 파괴
7위	디지털 불평등	고용/생계 위기
8위	국가 간 관계 균열	극단적 이상기후
9위	사이버 보안 실패	채무 위기
10위	고용/생계 위기	IT 인프라 고장

*자료 출처 : 세계경제포럼(WEF), ‘2021 글로벌리스크 보고서’(The Global Risks Report 2021), 2021.1.19 (전 세계, WEF 관계 전문가 남녀 841명, 설문조사, 2020.09.08-2020.1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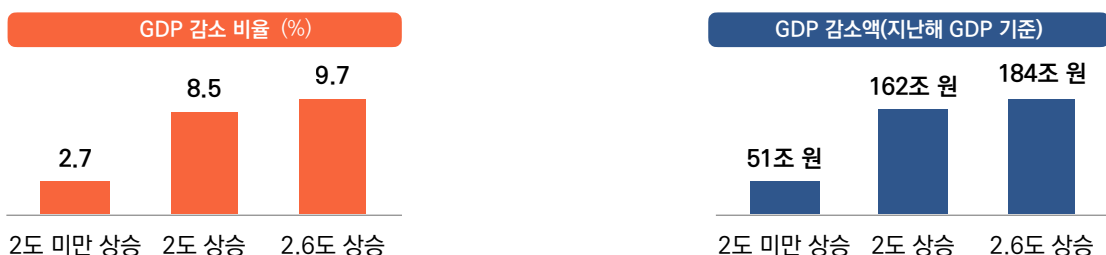
2



지구 온도 2도 상승 시, 국내 총생산 161조 이상 감소!

- 전문가들은 지구 온도가 2도 상승하면 지구에 파국이 올 것이라고 말한다.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의 목표도 1.5도 상승을 막아내는 데 있다. IPCC 보고서는 2050년까지 지구 온도가 2.6℃ 오를 것으로 전망했는데, 이럴 경우 미국의 국내총생산(GDP)은 7% 감소가 예상되며, 아시아 국가들은 3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 우리나라의 경우 2050년까지 지구 온도가 2도 아래로 상승할 때 국내총생산은 2.7% 감소하고, 2도 상승 시 8.5%, 2.6도 상승 시 9.7%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2도 상승 시 감소액을 지난해 GDP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162조 원에 달한다.

[그림] 지구 온도 상승 시 국내 GDP 감소 추정



*자료 출처 : 아주경제, ‘세계 평균기온 2도만 올라도…국내 GDP 8.5% 증발’, 2021.7.20. <https://www.ajunews.com/view/202107191441109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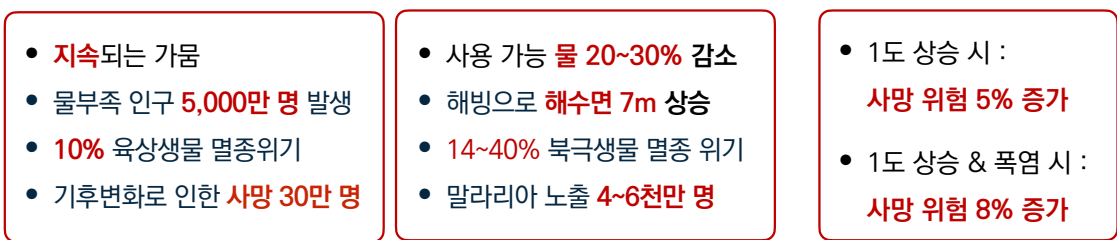
● 지구 온도 1도 상승하면, 세계 물부족 인구 5,000만 명 발생!

- 환경부의 기후변화 관련 발표 자료에 의하면 지구 온도가 1도 상승하면 가뭄이 곳곳에서 지속되고, 킬리만자로의 만년빙이 사라지고, 농부들이 농토와 거주지를 잃고 변화에 적응못한 희귀 동식물들이 멸종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 또 지구 온도가 2도 상승하면, 이산화탄소가 바다에 흡수되어 바다생물이 죽어가게 되고, 그린란드 빙하가 녹아 해수면이 상승하고 바다에 면한 도시들이 가라앉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 한국의 경우 평균기온이 1도가 상승하고 폭염이 발생하면 사망위험이 8%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림] 지구 온도가 1도 오르면...*

[그림] 지구 온도가 2도 오르면...*

[그림] 우리나라 평균 기온 상승과 사망 위험**



*자료 출처 : 환경부, 기후변화 SOS 캠페인, '지구 온도가 1도 오르면?... 기후변화 시나리오', 2019.09.23.(출처: 마크라이너스 6도의 멸종, 2014) (<https://www.korea.kr/news/visualNewsView.do?newsId=148864920>)

**자료 출처 : 더나은미래, "한반도 평균 기온 1도 상승에 사망 위험 5% 증가"...기후위기, 취약계층에 직격타', 2020.7.31. (<https://futurechosun.com/archives/498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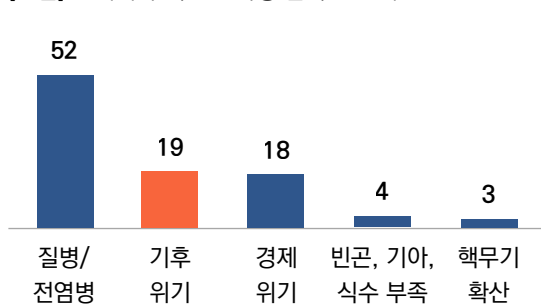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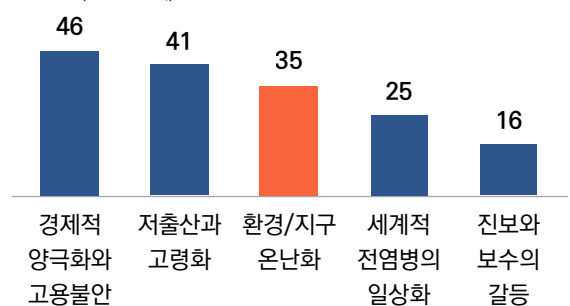
우리나라 국민 3 명 중 1명, 10년 내 '환경/지구 온난화' 위기 직면 예상!

- 우리나라 국민은 현재 전세계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로 '질병/전염병' 다음으로 '기후위기'를 꼽았다.
- 향후 10년 내 한국사회가 직면할 가장 큰 위기로는 '경제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다음으로 '환경/지구 온난화'(35%)가 응답됐는데, 국민 3명 중 1명이 한국 사회가 '환경/지구 온난화' 문제에 곧 직면할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림] 전세계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 (%)



[그림] 향후 10년 내 한국사회가 직면할 가장 큰 위기 (1+2순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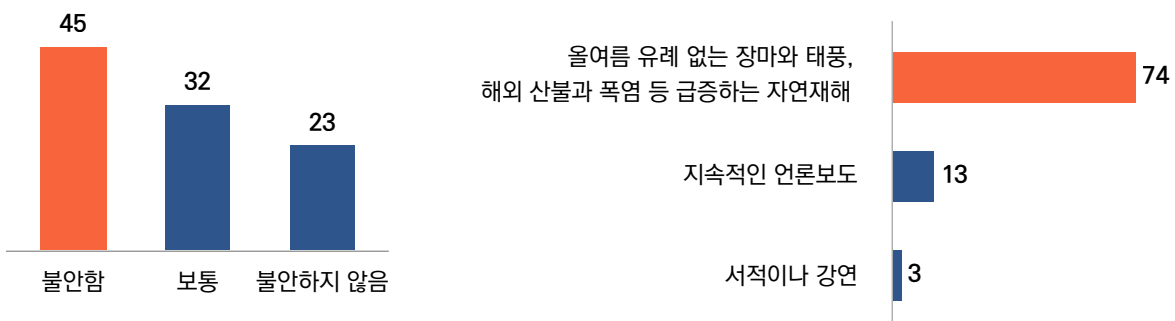
*자료 출처 : KBS, 그린피스, '기후위기 관련 시민 인식조사', 2020.10.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 웹조사, 한국리서치, 2020.10.16.~10~19.)

*자료 출처 : 예정합동, '코로나19 이후 교회 생태계 지형 변화 조사', 2020. 9. 13.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 온라인 조사, 지앤컴리서치, 2020.8.13.~8.20.)

● 급증하는 자연재해로 ‘기후 위기 심각성 느낀다’ 74%

- 국민의 절반 가량은 기후 변화에 대해 불안함을 느끼고 있었고, ‘급증하는 자연재해’로 인해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게 됐다는 비율이 74%에 달했다.
- 언론보도 등의 정보로 심각성을 느끼기 보다는 직접 느낀 후에 인식하는 경우가 많은 것인데, 더 큰 변화를 느끼기 전에 지금이라도 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그림] 기후 변화에 대한 불안함 (%) [그림] 기후위기 심각성 인식 계기(상위 3위) (%)



*자료 출처 : 통계청, '2020년 사회조사', (전국 만 13세 이상 가구원 약 38,000명, 2020.5.13.~5.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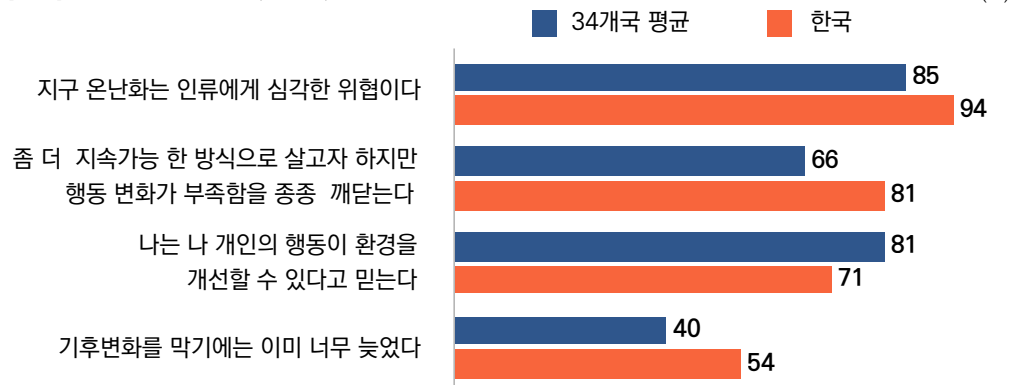
** 5점 척도로 '약간+매우', '전혀+별로'를 합한 값임.

*자료 출처 : KBS, 그린피스, '기후위기 관련 시민 인식조사', 2020.10.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 웹조사, 한국리서치, 2020.10.16.~10~19.)

● 한국인 세계인에 비해 기후 변화 위기 의식 더 크게 느끼지만, 개선 의지는 상대적으로 약해!

- WWS(WIN World Survey)의 한국을 포함한 세계 34개국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의 대부분은 지구 온난화를 '인류에게 심각한 위협'이라고 느끼고 있었고(94%), 절반 이상(54%)은 '기후변화를 막기에는 이미 늦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34개국 평균에 비해 우리나라 국민의 기후변화에 대한 위기의식이 더 크게 나타났다.
- 반면, 한국인은 '개인의 행동이 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에 대해 34개국 평균보다 10%p 낮게 응답했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살고자 하지만 행동 변화가 부족하다'는 34개국 평균보다 15%p 높게 응답했다. 즉, 세계인에 비해 위기 의식은 크지만 개선 의지와 실천성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그림] 기후변화 관련 인식(동의율)*** (%)



*자료 출처 : WWS(WIN World Survey), 기후변화와 지속가능성 관련 인식 다국가 비교 조사, 34개국 성인 총 29,252명, 전화/온라인/면접조사, 2020.10.~2020.12.

** 한국조사 : 한국갤럽-WIN, 전국(제주 제외) 만 19세 이상 1,500명, 면접조사, 2020.11.5.~11.29.

***4점 척도 질문으로 '매우+약간 동의한다' 비율임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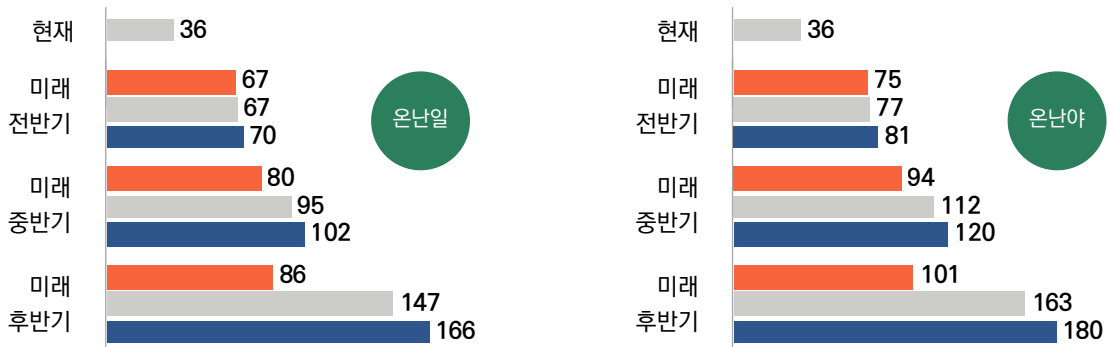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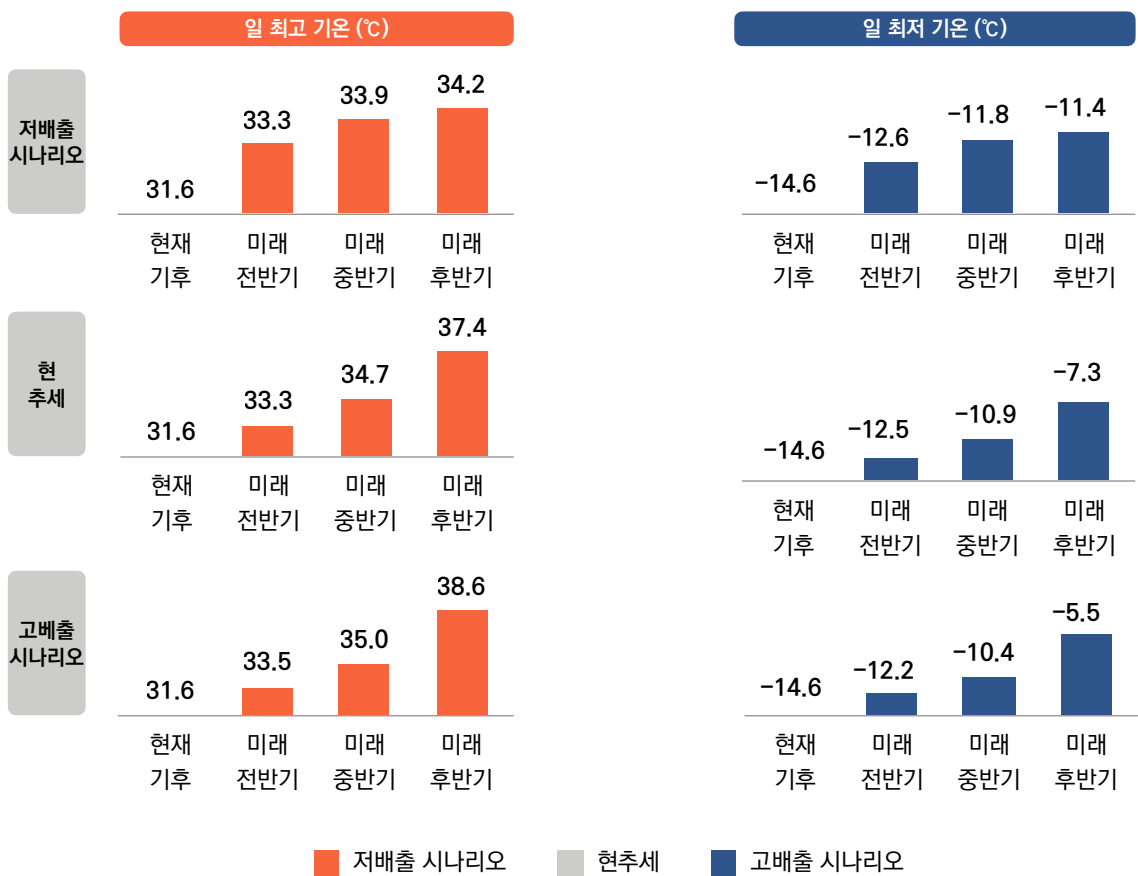


탄소 배출 줄이면, 온난일 1/2 수준까지 줄일 수 있어

- 지구 온도 상승에 가장 결정적인 것은 역시 탄소 배출이다. 탄소 배출이 현재 추세로 간다면 미래 후반기 ******(2081~2100년)에 일 최고기온은 37.4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이지만 탄소 배출을 지금보다 줄이면 3도 이상 낮출 수 있다.
- 탄소 배출을 줄이면 미래 후반기의 온난일은 86일로 예상되지만, 지금보다 많이 배출하면 166일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두 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이다.

[그림] 저배출 시나리오 vs 고배출 시나리오

(°C)



*자료출처 : 국립기상과학원, 'IPCC 6차 평가보고서 대응 전지구 기후변화 전망보고서'
 ** 미래 전반기 : 2021년~2040년, 미래 중반기 : 2041년~2060년, 미래 후반기 : 2081~2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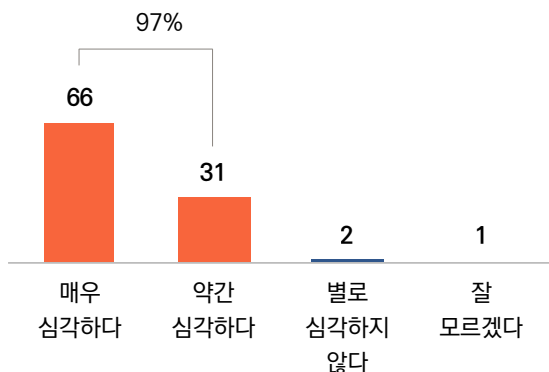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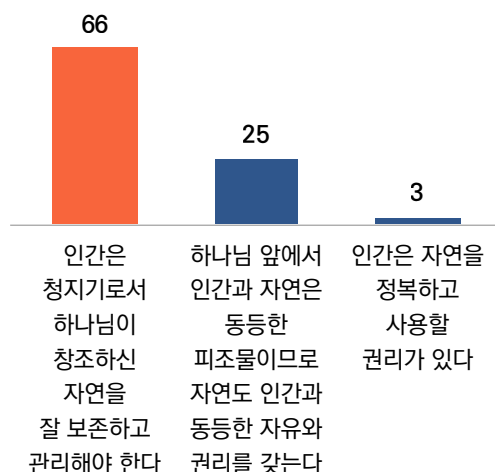
거의 모든 개신교인, 지구 온난화 ‘심각하다’

- 개신교인 대부분(97%)도 지구 온난화에 대해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3명 중 2명(66%)은 ‘인간은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을 잘 보존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지구 온난화 심각성(개신교인) (%)



[그림] 기독교인이 가져야 할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대한 관점(개신교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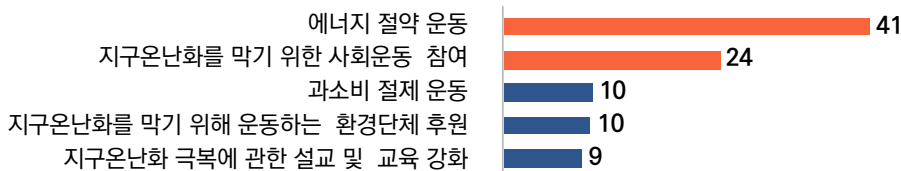


*자료 출처: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한국사회 주요 현안에 대한 개신교인 인식조사', 2020.8. (전국 19세 이상 개신교인 1,000명, 온라인 조사, 지앤컴리서치, 2020.7.21.~7.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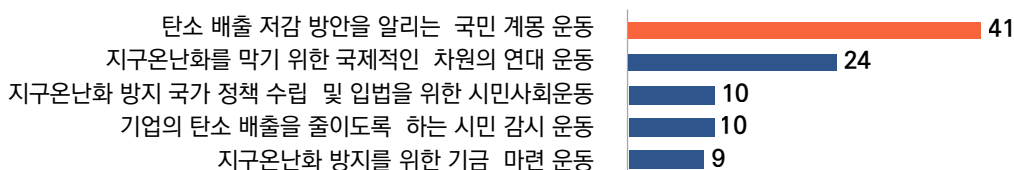
● 개신교인 4명 중 1명, 교회가 지구 온난화 막기 위한 사회운동 참여해야

- 교회가 지구 온난화 관련하여 시급하게 해야 할 일로, 개신교인의 41%가 ‘에너지 절약 운동’을 꼽았고, 24%는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사회 운동에 참여’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 특히, 사회운동 중 ‘탄소 배출 저감 방안을 알리는 국민 계몽 운동’을 해야 한다는 응답(41%)이 가장 높게 나타나, 한국 교회가 기후 위기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고 위기 극복을 위한 실천에 나서야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교회가 지구 온난화 관련하여 시급하게 해야 할 일(개신교인, 상위 5위) (%)



[그림] 교회가 지구 온난화 위해 해야 하는 사회운동(개신교인, '사회운동 참여' 응답자) (%)



*자료 출처: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한국사회 주요 현안에 대한 개신교인 인식조사', 2020.8. (전국 19세 이상 개신교인 1,000명, 온라인 조사, 지앤컴리서치, 2020.7.21.~7.29.)



시사점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다! 1980년대 우리 나라의 연 평균 기온은 12.0℃였는데 2010년대는 13.0℃로 1℃ 올라갔다. 1℃ 오르면서 폭염일수(일 최고기온이 33℃를 넘는 날)도 1980년대는 평균 7.4일이었는데 2010년대는 14.5일로 2배 늘어났고, 열대야(야간 최저기온이 25℃ 이상인 밤) 일수도 1980년대 평균 3.2일에서 2010년대 9.4일로 3배 늘어났다(4쪽).

1℃ 오른 것 갖고 웬 호들갑이냐고 그럴지 모르지만 환경부는 지구 온도 1℃가 오르면 가뭄이 지속되고, 물 부족 인구가 지금보다 5천만 명이나 늘어나고 육상생물의 10%가 멸종 위기를 겪고 기후 변화로 인해 30만 명이 사망하게 된다고 경고하고 있다. 또한 킬리만자로의 만년빙이 사라지고 농토는 사막화되어 농부들은 농토와 거주지를 잃는 비극이 일어난다고 한다.

기온이 상승하면 노인과 경제적 취약계층은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다.¹⁾ 한국의 경우 평균 기온이 1도 상승하면 사망 위험은 5% 증가한다. 폭염 시기에는 사망 위험이 8%까지 높아진다. 또 여성과 65세 이상 노인, 교육 수준이 낮은 인구 집단, 심뇌혈관이나 호흡기계 질환 등 만성질환자는 폭염 위험에 더 약하다고 한다. 특히 대기오염 물질은 70세 이상 노인에게 인지 손상뿐 아니라 기억, 실행 기능 손상을 불러 일으키고, 알츠하이머 치매와 파킨슨병까지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인간과 자연의 생존을 위협하는 기상변화의 주 원인은 이산화탄소 배출이다. 지난 10년간 한국의 이산화탄소 평균 농도는 2.4ppm 증가했다. 이는 전 세계 평균인 2.2ppm보다 높다. 한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세계 9위이다.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서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여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에너지 사용을 줄여야 한다. 에너지 사용을 줄인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산업생산시설을 폐기하고 자동차와 에어컨을 없앨 수는 없다. 극히 일부의 사람은 자연인으로 돌아갈 수 있지만 거의 모든 사람들이 현재의 문명과 생활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에너지 절약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를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에너지로 전환해야 한다. 대기오염을 막으면서 현재 수준의 안락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은 필수적이다.

그럼 우리나라의 친환경 에너지 상황은 어떤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 친환경 에너지 전환 속도가 뒤떨어지고 있는 편이다. 5월 16일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에너지 전환 지수(ETI) 2021’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전체 분석대상 115개국 가운데 에너지 전환지수 순위가 49위로 작년보다 1계단, 2012년보다는 7계단 낮아졌다.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인식의 변화도 있어야 하지만 사회적으로 투자 및 비용을 개인과 기업과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에너지 산업과 관련해서 수많은 이해 관계자가 얽혀있어, 복잡한 사회적 관계 속에서 친환경 에너지 전환은 저항을 불러오고 의도된 무관심으로 무시되기도 한다. 이런 조건을 무릅쓰고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과 에너지 절약을 위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 운동이 전개되어야 한다(9쪽).

지구를 지키는 일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지키는 일이다. 그러므로 지구를 지키는 일은 교회의 의무이다. 탄소배출 감소와 친환경 에너지 전환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높이는 사회운동에 교회의 참여가 필요하다. 한편으로 교회 내부적으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비닐봉투 줄이기, 물품 재활용 등의 작은 환경운동을 벌여, 기독교인들이 누구보다도 환경 문제에 민감하고 지켜려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이런 환경 문제에 대한 교회 내부의 공감대를 넓히고 이 공감대를 바탕으로 사회적 영향력을 발휘해야 한다. 이것이 창조 세계의 청지기로서의 교회가 기후 위기의 시대에 맡아야 하는 공적 역할이자 책무이다.

1) 환경부, ‘한국 기후변화 평가보고서 2020’

최근 언론 보도 통계

1. 우리 국민의 우울 위험군, 2019년 3% → 2021년 6월 18%

언론 보도 및 이슈 큐레이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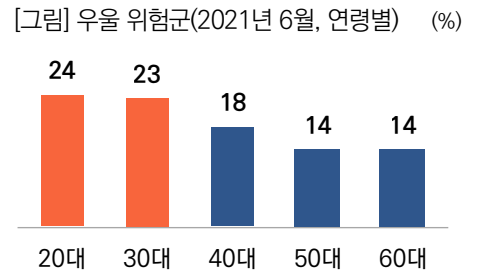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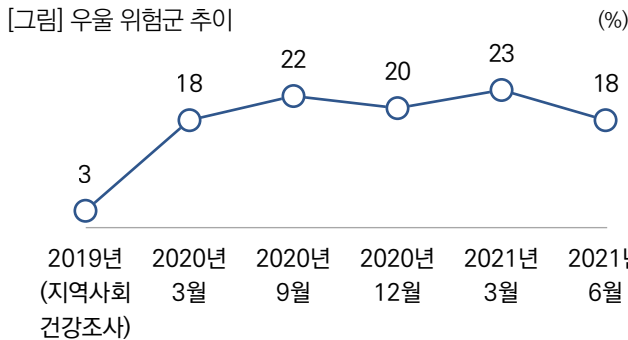
2021년 2분기 코로나19 국민 정신건강 실태 조사

1



우리 국민의 우울 위험군, 2019년 3% → 2021년 6월 18%

- 보건복지부가 작년 코로나19 발생 이후 우리 국민의 정신건강 상태를 추적 조사해왔는데, 지난 6월 조사 결과, 우울 위험군** 비율이 18%로 3월 조사(23%)보다 5%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코로나 19 발병 초기인 2020년 3월 18%와 같은 수치로 작년 하반기 이후 전체적으로 국민 정신건강이 다소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 하지만 이번 우울 위험군 비율 18%는 코로나 발생 이전인 2019년 3%(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보다는 무려 6배가 높은 수치이다.
- 연령별로는 '20대' 24%, '30대' 23%로 젊은층에서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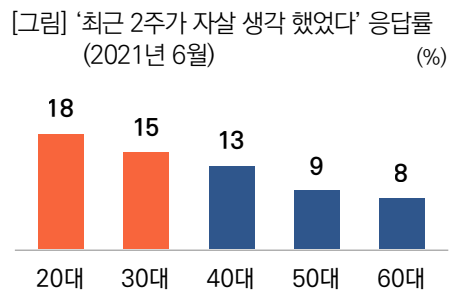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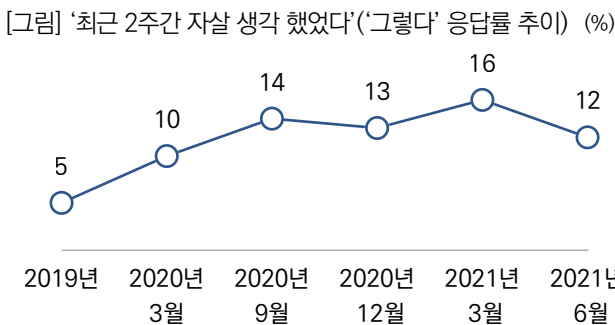
*자료 출처 : 보건복지부/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 '2021년 2분기 국민 정신건강실태조사', '2021.07.26.(전국 성인 만19~71세 성인 2,063, 온라인 조사, 2021.06.15.~25)

** 우울위험군 : 우울 판독 점수 27점 중 10점 이상, 우울정도가 중간+심한 수준

*** 자료 해석 시 조사 시점(6월 15~25일)의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400명대 임에 유의할 것

● 최근 2주간 자살 생각 12%, 지난 3월을 정점으로 하락세!

- 최근 2주간 자살 생각을 한 적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의 12%가 '있다'고 응답했는데, 이는 지난 3월(16%)보다는 4%p 감소한 수치이다. 그러나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하면 2배 이상 높은 수치이고, 코로나19 발생 시점인 작년 3월보다도 약간 더 높은 수치이다.
- 연령별 자살 생각은 우울 위험군과 마찬가지로 젊은층이 타 연령대에 비해 높았는데, '20대'가 18%로 가장 높았고, '30대' 15%, '40대' 13%, '50대' 9%, '60대' 8% 순으로, 연령이 낮아질수록 자살 생각 비율이 낮다.



*자료 출처 : 보건복지부/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 '2021년 2분기 국민 정신건강실태조사', '2021.07.26.(전국 성인 만19~71세 성인 2,063, 온라인 조사, 2021.06.15.~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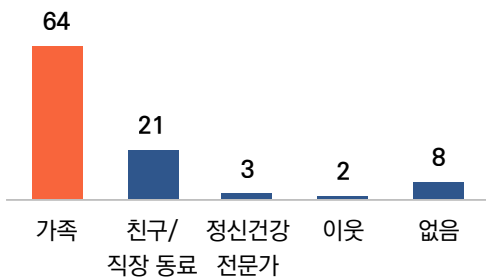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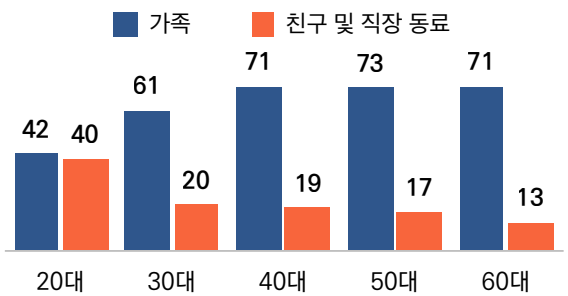
코로나 상황에서 심리적 어려움을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된 사람 ‘가족’ 64%

- 코로나19 상황에서 심리적 어려움을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된 사람으로는 ‘가족’이 64%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친구 및 직장 동료’ 21%, ‘정신건강 전문가’ 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 가족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결과이다.
- 20대의 경우 ‘친구/직장 동료’가 40%로 타 연령대에 비해 2배 이상 높았다.

[그림] 코로나19 상황에서 심리적 어려움을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된 사람(전체) (%)



[그림] 코로나19 상황에서 심리적 어려움을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된 사람 중 가족과 친구 비율(연령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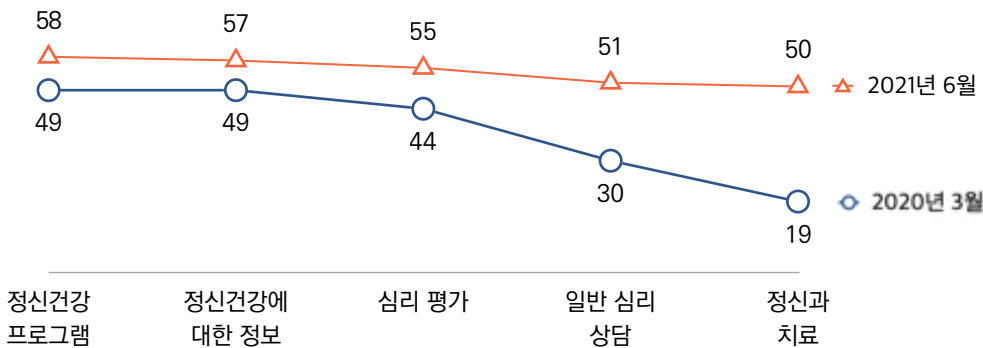


**자료 출처 : 보건복지부/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 '2021년 2분기 국민 정신건강실태조사', '2021.07.26.(전국 성인 만19~71세 성인 2,063, 온라인 조사, 2021.06.15.~25)

● 코로나19 관련 필요 서비스, ‘정신 심리 건강과 정보’ 꾸준히 증가

- 코로나19 관련 정신건강을 위해 서비스별 필요도를 질문했는데, 2020년 3월 조사에 비해 전체적으로 정신과 치료, 심리 상담 등 정신건강 지원 서비스의 필요 인식이 1년 사이에 증가한 점이 눈에 띈다. 이는 교회가 교회 내 뿐 아니라 지역사회를 위해 실질적 지원과 더불어 정신과 마음 건강을 위한 지원 서비스 역할을 감당해야 할 지점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림] 코로나19 관련 정신건강을 위한 서비스별 필요도(매우+약간 필요하다) (년)



**자료 출처 : 보건복지부/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 '2021년 2분기 국민 정신건강실태조사', '2021.07.26.(전국 성인 만19~71세 성인 2,063, 온라인 조사, 2021.06.15.~25)

** 4점 척도 질문으로 '매우+약간 필요하다' 비율임



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정치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제458호\(2021년 7월 5주\) - 경제 전망 \(7월 통합 포함\)](#)

[전국지표조사 리포트 제39호 \(2021년 7월 4주\) 대통령 국정 평가, 대선후보 적합도 등](#)

사회

[2020 인구센서스 발표, 20대 127만명 '나혼자 산다'](#)

연합뉴스_2021.07.29.

[양극화 갈수록 심화...소득은 짝꿍, 부동산 자산은 광속 증가](#)

연합뉴스_2021.07.27.

[코로나 장기화로 유독 우울... '2030'은 왜 그럴까?](#)

조선일보_2021.07.26.

[행복하고 우아한 노년?...죽는 날까지 재미처럼 일해야](#)

연합뉴스_2021.07.28.

일반

[재난지원금 지급, 보편→차등 선호... 1년새 돌아선 민심](#)

한국일보_2021.07.29.

[5월 출생아 수 2만2천명...19개월째 인구 자연감소](#)

연합뉴스_2021.07.28.

["코로나 시대 노인들, 영상통화로 더 고독감 느껴"](#)

연합뉴스_2021.07.27.

["대체육 괜찮네"... 2040년엔 육류시장 넘어선다](#)

동아일보_2021.07.29.

경제

[현 정부가 만든 일자리, 박근혜 정부보다 40만개 적어](#)

중앙일보_2021.07.27.

['빚' 속의 20대... 文정부 4년새 은행대출 2.6배 폭증](#)

조선일보_2021.07.28.

[서울 핵심상권 명동 상가, 10곳중 4곳이 비었다](#)

동아일보_2021.07.29.

[창업에 1억 이상 들지만... '프랜차이즈 브랜드' 절반 5년 내 사라져](#)

한국일보_2021.07.28.

["년 특별하니까..." 팬덤 거느린 브랜드가 뜬다](#)

동아일보_2021.07.28.

교육

[미적분 못해도 공대 합격...지방대, 눈물겨운 '정원 채우기'](#)

매일경제_2021.07.25.

[대학 1인당 교육비, 서울 1786만원 vs 전남 1125만원](#)

매일경제_2021.07.25.

국제

[전세계 근로자 셋중 둘 코로나19 끝나도 재택근무 원해](#)

연합뉴스_2021.07.25.

[교황청 부동산 첫 공개...전세계 5171곳, 이탈리아에만 4051곳 소유](#)

중앙일보_2021.07.26.

[작년 북한 대외무역 규모 73% 급감...'대북제재·국경봉쇄' 여파 | 연합뉴스](#)

연합뉴스_2021.07.29.

[10분짜리 '자이로드롬'이 300억? "우주는 계급 나누는 마지막 경계선"](#)

조선일보_2021.07.24.

기후 환경

[서울 또 37도...美 54도 모스크바 34도, 지구의 독한 역습 시작됐다](#)

매일경제_2021.07.25.

[오늘 '생수' 사 먹은 당신이 놓쳐버린 사실](#)

오마이뉴스_2021.07.27.

이슈 큐레이션

[10점 과녁 맞힌 화살 또 맞혔다, 이게 '9연패' 韓양궁 실력](#)

중앙일보_2021.07.25.

[한-일관계, 구도가 바뀌었다](#)

한겨레_2021.07.23.

넘버즈 칼럼

정부와 협상을 통해 비대면을 대면 예배로 전환시킨 사례 (경남기독교총연합회)

박정곤 목사(거제, 고현 교회)
전 경남기독교총연합회 대표 회장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고 급기야 4차 유행이 진행되면서 형평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지만 정부의 행정 지침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교회는 다시 문을 닫았다. 이렇듯 종교활동을 제한하는 정부의 조치에 교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필자가 작년 대표회장으로 섬겼던 경남기독교총연합회의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2020년 8월 23일 주일, 경남지역 모든 교회에 경남도지사의 긴급행정명령인 [교회 비대면 예배 전환 행정명령]이 발동되어, 공무원들이 일일이 교회를 방문하여 해당 지자체장의 공문을 전달하였다. 그 내용은 “2020년 8월 23일 0시부터 별도 해제시까지, 경상남도에 소재하는 모든 교회는 예배시 비대면 예배로 전환하고 기타 대면 모임, 행사, 식사 등을 금지”하며,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에 따라 형사처벌 될 수 있으며, 위반으로 감염이 확산되어 발생하는 방역비용 등에 대하여 구상권을 청구하게 되며,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 조치한다”는 것이다.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긴급한 조치라는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타의에 의해 예배와 신앙생활에 제한을 받는, 그야말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어려움이였다. 다음날 긴급히 경남의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 경남도지사와의 면담을 갖자고 결의하고, 어렵게 도지사와 면담이 성사되어, 경남 교회의 입장을 대표해서 대화를 나누었다. 주된 내용은 “지금 코로나19로 전국민이 힘들지만 종교인은 더 힘들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신앙의 힘으로 이겨내는데, 지금은 생활도 생활이지만 예배 생활이 제대로 안되는 것이 더 힘들다. 실제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교회는 약 30% 밖에 되지 않는다. 상가 미자립 개척교회와 고령화된 농어촌교회는 비대면 예배가 불가능한 상황에 있다 보니, 신앙생활도 힘들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문을 닫는 교회가 속출하고 있다. 법과 행정은 모든 국민, 모든 종교에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는데, 지금 언론은 마치 교회가 코로나19 확산의 주범인 양 왜곡, 편향, 호도하고 있으며, 정부 또한 교회를 주요 원인으로 여론을 몰아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우리나라에 6만여 교회가 있고, 약 1천만(967만) 명의 기독교인 중, 코로나에 감염된 교회는 27개 교회(2020년 8월 25일 기준), 1,400여 명밖에 되지 않으며, 815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사랑제일교회를 제외하면 600여 명 정도이며, 그것도 교회에서 감염된 사례는 10개 교회가 채 되지 않으며, 나머지는 외부에서 감염된 사람이 예배에 참석한 경우이다. 커피숍이나 식당, 유치원이나 병원, 백화점 등에서 확진자가 나오면 해당 시설만 폐쇄하고 방역하고, 다른 식당, 유치원, 병원, 백화점을 폐쇄하지 않는다. 그런데 유독 교회에 대해서만 전국적으로 폐쇄 조치에 비대면 예배로 전환하라는 행정명령은 공정하지도 공평하지도 않은 처사다. 전국 대부분의 교회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잘 지키고 있으며, 청정지역 중의 청정지역이니 이런 형편을 잘 살펴주시기를 바란다”며 면담을 마쳤다. 목요일까지 답변을 부탁했다.

그리고 교역자들과 함께 주기철 목사님이 기도한 곳으로 유명한 무학산 십자바위에 올라가서 간절히 기도했다. 거제에서 무학산까지 차로 90분, 도보로 30분을 올라가야 하는 힘든 길이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기에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초저녁에 올라가서 새벽 2시까지 간절히 기도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시 50:15)’.

목요일 오후 늦게 도지사로부터 답변을 받았다. “비대면 예배가 힘든 교회들은 철저한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기존대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규모 있는 교회들도 한 공간에 50명씩 여러 차례 나눠서 예배드릴 수 있고, 식사는 금지하며, 이 명령은 모든 종교, 모든 단체에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내용이 그 답변이었다. 이는 긴급행정명령을 내린 지 불

과 5일 만의 일이었고, 모든 경남교회 기독교인의 기도와 행동하는 신앙의 결실이었다. 이 일은 경남과 전국의 교회에 모범적인 선례가 되어, 정부와 교회가 대치관계가 아닌 상호협력관계이며, 전국의 많은 지역에서도 해당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동일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장기화되면서 그 어느 때보다 교회가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 대면 예배가 제한을 받으면서 성도들의 신앙이 큰 위협을 받고 있다. 특히 신앙이 약한 성도들과 초신자들은 신앙을 지켜 나가기가 쉽지 않다. 교회가 코로나 확산의 주된 원인으로 보는 일반인들의 시선이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정부와 관계를 지혜롭게 풀어가야 할 것이다. 앞의 경남기독교총연합회의 사례처럼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정부 당국자들과 진지한 대화, 설득을 통해 교회는 정부의 방역지침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며, 정부는 교회에 대해 종교의 자유를 존중하며 현실적이지 않은 지나친 강제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국 교회가 연합하여 우리의 소중한 예배의 자유와 모임을 조속히 회복하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목회데이터연구소 후원자

후원 교회 | 강남중앙침례교회, 거룩한빛광성교회, 고현교회, 과천교회, 광림교회, 광주다일교회, 꿈마을엘림교회, 노량진교회, 당진동일교회, 대구내일교회, 대전선창교회, 밀양남부교회, 백주년기념교회, 베다니교회, 새에덴교회, 서울드림교회, 서울서문교회, 서현교회, 성락성결교회, 소망교회, 송학대교회, 수원북부교회, 수원중앙침례교회, 순복음춘천교회, 안산제일교회, 안성중앙교회, 여의도순복음교회, 연동교회, 예향교회, 오류동성결교회, 오류교회, 올리브교회, 이룸교회, 일산광림교회, 일산세광교회, 전주기쁨의교회, 주안장로교회, 중앙성결교회, 지구촌교회, 진주삼일교회, 충신교회, 창동염광교회, 탑동감리교회, 포항대도교회, 포항제일교회, 하나마을교회, 한국중앙교회, 한성교회 한소망교회(가나다 순)

후원 기관 | 고려신학대학원, 교회성장연구소,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 (재)기독교선교햇불재단, 기아대책,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 (사)사단법인 아시안미션, 서대문ESP, 서울노회아동부연합회(예정통합), (사)새길과새일, 아드폰테스(예정 통합 목회자 모임), 알파코리아,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장로회신학대학교, 제이제이경제연구소, 지앤컴리서치, 한국교회탐구센터,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한목회, 한빛누리, 한국기부문화연구소, 햇불회, (재)CBS, CBMC 광주지식포럼, CBMC 행복한지회, CCC 사역연구, GoodTV(가나다 순)

후원 기업 | (주)그랑블루, 동광에스아이, (주)마뜨, (주)바이텍테크놀로지, (주)셀파 C&C, (주)시스코프, (주)예중세무법인, (주)자연인(아이소이), (주)참든건강과학, (주)하츠/(주)벽산 CNP코퍼레이션 (가나다 순)

후원 개인 | 고재환, 고현권, 구영생, 구정오, 금교성, 김관상, 김동하, 김명준, 김상근, 김상래, 김상로, 김석철, 김성렬, 김성민, 김성은, 김숙정, 김시은, 김연진, 김영훈, 김윤철, 김윤환, 김은선, 김재욱, 김주룡, 김주형, 김지한, 김지현, 김현모, 김형태, 김홍일, 김흥기, 남성태, 류선자, 류지성, 문성준, 박노석, 박미경, 박상윤, 박세용, 박형철, 박영호, 박우빈, 박재찬, 박종철, 박종현, 박준상, 박지훈, 박진규, 박진철, 박찬주, 박형철, 박홍래, 반기민, 방승기, 배수정, 백인범, 서재승, 서해현, 석승호, 석진호, 선원규, 성창민, 송섭, 송으뜸, 심기식, 안정호, 안태근, 양수민, 엄정석, 여삼열, 우애라, 유성민, 유형창, 윤동하, 윤여민, 윤여민, 이광호, 이달훈, 이대식, 이덕희, 이만민, 이미경, 이병희, 이삼열, 이상호, 이성근, 이성진, 이승철, 이영선, 이완중, 이은라, 이인성, 이일영, 이재열, 이정규, 이정아, 이주일, 이지형, 이창준, 이창현, 이춘봉, 이현, 이현구, 이현식, 이호택, 이훈희, 임성빈, 임현주, 장명희, 장병우, 장부식, 장우성, 장형철, 전응림, 전치영, 정부활, 정용철, 정종섭, 정준, 정준, 정희수, 조병길, 조용민, 조의환, 조준환, 조창오, 주학선, 지중배, 진범수, 차용현, 최명영, 최상도, 최상현, 최용기, 최은아, 최준, 최준혁, 최현갑, 한재웅, 한홍근, 함용태, 호재민, 홍의숙, 홍혜숙, 황태기(가나다순)

신규 후원 | IFCJ 가정의 힘(교육디렉터 단혜향), 메가리서치(안태숙 대표이사)

매월 신규후원자는 **당월 마지막 주에 취합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드립니다.**

후원 방법

본 연구소는 주간리포트를 제작하여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에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100% 후원을 통해 운영됩니다. 이 사역에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소 후원은 공익재단을 통해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1. 기부금 영수증 발행 후원 계좌 및 안내 → [링크 클릭](#)

2.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필요하지 않으시다면 직접 계좌 송금으로 후원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계좌 안내 : 하나은행 203-910046-18604(목회데이터연구소)

목회데이터연구소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8길 17 현빌딩 2층

미션

우리는 세상과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슈, 사고방식, 그리고 트렌드를 한국 교회 목회자와 리더십에게 알리는 '정치 중립/가치 중립의 공정한 팩트 탱크'로서, 사회 여론 조사, 공공 통계 등 데이터 기반의 통계 자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교회-사회의 대화와 소통을 풍요롭게 하고 더욱 견고하고 온전한 의사 결정을 위해 '사실'에 입각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협력 기관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재) CBS
(재) 한빛누리
한국교회탐구센터

섬기는 이들

김지철 목사 | 운영위원장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이사장)
류영모 목사 | 후원이사회 회장(한소망교회 담임목사)
신원하 교수 | 연구자문위원장(고려신학대학원 원장)

만든 이들

지용근 | 목회데이터연구소 대표 | ykji@mhdata.or.kr
김진양 | 목회데이터연구소 부대표 | marpro@mhdata.or.kr
김준영 | 목회데이터연구소 실장 | jy0113@mhdata.or.kr
박태영 | 목회데이터연구소 간사 | mhdata@mhdata.or.kr

MOU 기관

교회성장연구소,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교통일지도자훈련센터 (송실대학교), (재)기독교선교햇불재단, 기아대책,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교단총회, 마크로밀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문화선교연구원,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아드폰테스, 한국IFCJ가정의힘,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한목협)

목회데이터연구소 소식

1. <2021 컴패션 글로벌 목회자 컨퍼런스 >를 알려 드립니다.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들과 함께 교회가 새로운 기회와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 '2021 컴패션 글로벌 목회자 컨퍼런스'에 많은 목회자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행사사이트 : <https://connect.compassion.or.kr>
- 홍보영상 : https://youtu.be/T013_yGxB3o